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9, pp. 175-184,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175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박동진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An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ong-Jin Park
Research Profess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1,329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6차년도(2016) 청소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교사 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SPSS 22.0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및 교사의 역할,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교사지지,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this end, we used the 6th Year (2016) adolescents survey data of 1,329 multicultural adolescents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MAPS),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Using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or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school adjustment, and as moderating variables for teacher support. As a result,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d acculturati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decreased as the acculturation stress increased. Second, teacher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 discussed and suggested the supportive measures, the role of teachers, and follow-up research to reduce the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increase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Acculturation stress, School adjustment, Teacher support,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Dong-Jin Park(wookana@hanmail.net)
Received July 8, 2019
Revised August 26,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들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 환경 속에서 상이한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신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험이 장기간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결국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균형이 잃게 될 수도 있다[2].

실제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발달이 늦고[3], 학업성취가 낮고[4, 5], 학업 중도탈락율이 높으며[6], 외모로 인한 차별[7]과 그로 인해 친구들의 관계에서 집단따돌림[8, 9] 등을 경험하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10], 우울과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정서[2]를 경험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청소년기는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를 크게 겪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서 갈등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사회의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11],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극심한 부적응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이라는 추가적인 과업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를 경험하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응해있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의미한다[12].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 언어를 비롯하여 외모의 차이로 인해 차별및 무시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이 차별 또는 무시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에 대해 배타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3].

더욱이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에서 성장한 부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자녀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습득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이어져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외에도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의사, 감정 등을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하여 또래관계 내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15].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부모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성장환경으로 인해 상이한 가치관들 간의 충돌도 경험하게 되고, 성장과정에서 혼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경험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교적응이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20]. 다문화 청소년은 익숙하지 않은 이중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냉대를 당하기도,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중문화 속에서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1,22].

이러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혜숙, 박미현[6]에 의하면 2014학년도 서울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 초, 중, 고 1.44%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인 1.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중학생 1.04%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경숙[4, 23]에서는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2007년 26.9%에서 2010년 40.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적응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학교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1, 24-27]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주요 요인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거론된다. 부모 사이 및 사회환경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

고, 이는 또래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독특한 경험하는 것이다. 전수정, 윤혜미[17]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을 하는 데 겪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아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학교적응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강유임[28], 우희정[29]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지지, 또래지지, 부모지지, 가족지지 등이 학교적응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30,31], 일부 연구들에서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32]. 교사지지는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가 학생인 자신에 대해 교사가 관심을 갖고 도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33]. 교사 지지는 부모지지, 또래지지 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교육할 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적 · 정서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있는 존재하고 할 수 있다[34]. 특히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또래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러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5, 36].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38]. 이러한 교사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노선덕, 강길현[32]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교사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학교적응에 대해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과를 다문화 청소년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차별경험, 언어갈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직접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교사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고,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다문화 청소년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러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다문화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하지만, 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시기부터는 인간발달단계에 있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개인에게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변화를 크게 경험하게 된다[3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칭할 정도로 생애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모호하고, 집단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 신체적 성숙과 심리적 · 사회적 미성숙 간의 불균형, 기성세대와 가치관 차이, 학업과의 갈등 등을 겪는 것과 같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마주한다[40].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성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는 필요한데, 다문화 청소년은 그 적응하는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발달양상을 보이지만[41] 학교급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42],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아동기와는 다소 구별되는 교사의 역할에서 비롯된 교사지지의 특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줄이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중에서도 교사의 역할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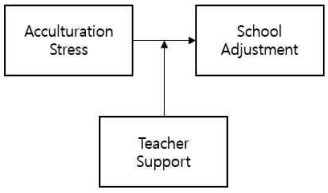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 MAPS)' 6차년도(2016)의 청소년 대상 조사데이터이다. 이 패널데이터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모집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이기에 결과적으로 국제결혼자녀가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43]. 이 패널데이터는 현재 1차년도(2011) 데이터부터 6차년도(2016) 데이터까지 공개되어있다. 구축 당시인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6차년도(2016)는 중학교 3학년인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el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Frequency	%
Sex	Male	654	49.2
	Female	675	50.8
	Total	1,329	100.0
Age	14	101	7.6
	15	1,177	88.6
	16	45	3.4
	17	5	0.4
	18	1	0.1
	Total	1,329	100.0
Residential district	Seoul	140	10.5
	Gyeonggi & Incheon	345	26.0
	Chungcheong & Gangwon	260	19.6
	Gyeongsang	304	22.9
	Jeolla & Jeju	280	21.1
	Total	1,329	100.0
Foreigner among parents	Father	42	3.2
	Mother	1,283	96.5
	Both	4	0.3
	Total	1,329	100.0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 MAPS)'의 6차년도(2016) 청소년 대상 조사 원자료 중 종속변수인 학교적응과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절변수인 교사지지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홍진주[4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관심이 없다", "2=관심이 없는 편이다", "3=관심이 있는 편이다", "4=매우 관심이 많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7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2.3.2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지경 외[45]의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 5개 문항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5개 문항 중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1개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3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2.3.3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한미현[4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중 교사지지의 8개 문항 중 3개 문항으로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사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2로 매우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47].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306~.1.394)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163~3.866)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켰다[48].

주요변수 간의 Persons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r=-.204, p<.01)을 보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학교적응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인 교사지지는 학교적응과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r=.358, p<.01)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key variables

	1	2	3
1. Acculturation Stress	1		
2. School Adjustment	-204***	1	
3. Teacher Support	-.167***	.358***	1
Minimum Value	10.00	5.00	3.00
Maximum Value	40.00	20.00	15.00
Average	14.15	13.81	11.56
S.D	3.25	1.95	2.43
Skewness	1.394	-.120	-.306
Kurtosis	3.866	1.303	-.163

*** p<.001

3.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의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Model 1).

두 번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인 교사지지와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Model 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을 낮추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34].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의 설명력은 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β=-.167)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한 Model 2의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설명력 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상호작용항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교사 지지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β= -.087, p<.01),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Verifying the Moderation Effect of Teacher's Support

Category	Model1			Model2		
	B	S.E	β	B	SE	β
Acculturation Stress(a)	-.100 ***	.016	-.167	-.072 ***	.016	-.120
Teacher Support(b)				.265 ***	.021	.331
(a)*(b)				-.022 **	.007	-.087

Category	Model1	Model2
significant figures	1,329	
constant	15.228	11.735
R^2	.028	.144
adjusted R^2	.027***	.027***
F	37.907***	74.481***
R^2 change	.028	.117

** p<.01, ***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들 관계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사의 역할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수정, 윤혜미[17], 강유임[28], 우희정[29]과 유사한 결과였다. 전수정, 윤혜미[17]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임[28], 우희정[29]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데 학습지원, 언어지원 등의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접근할 때, 학교적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된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낮추는 데 있어 교사지지는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노선덕, 강길현[32]과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노선덕, 강길현[32]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로 보고,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았으며,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을 겪어 학교적응에 있어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사지지를 통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접근하는 것과 함께, 교사지지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적응은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학교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지지가 높을 때, 학교적응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교사지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적절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에서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볼 때 다문화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사지지는 여전히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도 교사지지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도 학교적응에 있어서 교사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기부터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적응에 있어서 교사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교적응을 높이는 데 교사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대책 방안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결국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겪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학교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사지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만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얼마나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도를 하느냐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지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49, 50],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연수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교사연수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상담지도방법 등이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교사지지가 이를 감소시키는 데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지지뿐 아니라 부모지지, 또래지지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30, 31], 이들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사뿐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후속연구에서 살펴본다면 학교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고,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다면, 보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H. S. Jung. (2009).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story of women married to Pakistani migrant workers*, Paju : Hanwool Academy.

[2] S. G. Kim. (2011).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247-272.
UCI : G704-000387.2011.18.3.012

[3] K. S. Kim. (2008).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Forum for Youth Culture*, 18, 589-98.
UCI : G704-SER000002119.2008..18.003

[4] K. S. Jun.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DOI : 10.35151/kyci.2008.16.1.011

[5] Y. K. Park. & S. Y. Lee. (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Inter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DOI : 10.35557/trce.41.1.200903.003

[6] H. S. Lee & M. H. Park. (2015). *The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eoul*, Seoul : The Seoul Institute.

[7] H. Y. Cho, C. H. Lee, S. H. Kwon, D. H. Seo & E. H. Lee. (200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Life and the Acceptance of Teachers and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8] S. H. Park.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UCI : G704-000946.2009..29.003

[9] A. Y. Kim. & S. I. Kim. (2011).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betwee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853-873.
UCI : G704-000199.2011.25.4.004

[10] H. Seo & S. E. Lee. (2007).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25-47.
UCI : G704-000666.2007.12.4.019

[11] H. K. Jin & J. H. Sohn.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Caused by the Empathy Ability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Parental Rearing Attitude: Focusing on the Literary Works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Multiculture & Peace, 13(1),* 164-184.

[12] J. W.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DOI : 10.1080/026999497378467

[13] S. G. Lee, H. S. Park, Y. H. Rho & C. W. Rhee. (2012). The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ion Stress and Cultur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er, 38,* 235-264.
UCI : G704-000946.2012..38.009

[14] Y. S. Chung. (2011). Impact of Family Ecology 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of Language and Family Welfare. *Contempa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2),* 140-159.

[15] S. J. Song. (2007). *Effect of the socialization of a child from an international marriage on ego-identity.* Mater thesis,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16] J. B. Chun. (2018).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ttitude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self-esteem of their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3),* 121-146.
DOI : 10.14328/MES.2018.9.30.121

[17] S. J. Jeon. & H. M. Yoon. (2013).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153-179.
UCI : G704-SER000009000.2013.24..006

[18] E. K. Kim & J. N. Kim.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4),* 21-43.
DOI : 10.14328/MES.2016.12.31.21

[19] S. M. Eun, S. H. Lee & K. Y. Lee. (2019). Acculturative stress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tterns, predictors, and psychosocial outcomes. *Studies on Korea Youth, 30(2),* 177-211.
DOI : 10.14816/sky.2019.30.2.177

[20] M. Jang & J. S. Chun. (2013).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Family and Culture, 25(4),* 182-213.
DOI : 10.21478/family.25.4.201312.007

[21] K. R. Park & J. M. Lee. (2011). The Factors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9(2),* 89-100.
UCI : G704-000320.2011.29.2.010

[22] D. H. Kim. (2016).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9(3),* 156-166.
DOI : 10.15434/kssh.2016.29.3.156

[23] K. S. Jun. (2015). *Trends and Policy Task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Suwon :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4] S. K. Un.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37-74.
UCI : G704-000946.2010..33.005

[25] S. B. Choi. (2011).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daptation of a Student in a Multicultural Family and related Variable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9(2),* 261-287.
DOI : 10.25152/ser.2011.59.2.261

[26] Y. S. Kim, C. K. Shin & H. J. Kim. (2012). The Effects of the Potential Abiliti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The Case of Elementary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5(2),* 161-185.
UCI : G704-000649.2012.25.2.012

[27] M. K. Kim & H. Y. Kim. (2015),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ping Strategie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2),* 367-385.
DOI : 10.13049/kfwa.2015.20.2.367

[28] Y. I. Kang. (2013) *Relationships between the attach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to mothers and theirs adjustments : The Interven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es and Negative Coping Mechanisms*. Doctoral dissertiton. Dankook University, Yongin.

[29] H. J. Woo. (2015).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motional Control on Depression/Anxiety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6(3),* 551-563.
DOI : 10.7856/kjcls.2015.26.3.551

[30] M. Y. Sim., D. N. Lee. & J. O. Park. (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apt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Mediating of Bi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5,* 233-254.
UCI : G704-SER000009000.2013.25..001

[31] J. B. Sul & S. H. Kim, (201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by Multicultural Background: Testing Medi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8(1),* 155-180.
DOI : 10.14363/kaps.2017.18.1.155

[32] S. D. Rho & G. H. Kang. (2015), A Research on the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in the Course of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3),* 157-167.
DOI :10.9708/jksci.2015.20.3.157

[33] E. J. Trickett & R. H. Moos. (1973). Social environment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1),* 93-102.
DOI : 10.1037/h0034823

[34] S. R. Lee & H. W. Park. (2005). Parents`, Peers`, and Teachers` Influence on the Self-concept of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emnt Research, 43(5),* 163-181.
UCI : G704-000012.2005.43.5.005

[35] Y. O. Nam. (2017).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enting Attitude, Self-control, and Teacher Support. *Journal of Youth Welfare, 19(3),* 165-186.
DOI : 10.19034/KAYW.2017.19.3.07

[36] Y. J. Lee. (201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Family, Teacher, and Friend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1197-1210.
DOI : 10.22143/HSS21.10.2.85

[37] K. W. Cheong & R. H. Kwon.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nd Teacher Attach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5-2),* 81-102
UCI : G704-000387.2006.13.5-2.005

[38] E. Y. Kim. (2008).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within the society and Delinquents within the fac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273-297
UCI : G704-000387.2008.15.7.012

[39] S. D. Kwon & H. J. Lee. (2015).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structional Satisfaction, and School Adaptation in Middle School: Focused on the First-year Students of Middle School in Seoul, 2013.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2),* 287-314
DOI : 10.14333/KJTE.2015.31.2.287

[40] M. K. Jang. (2004). Adolescent's Social Network Orientation: Social Support Process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1),* 3-14

UCI : G704-000485.2004.12.1.004

[41] J. Y. Lee & G. H. Chung. (2019). A Typology of Adapt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 Lantent Profile Analysi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2(2),* 85-114
DOI : 10.14431/jms.2019.06.12.2.85

[42] J. A. Oh. (2019). Meta-analysis of psycho-social factors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5,* 159-182
DOI : 10.20993/jSSW.45.7

[43] K. M. Yang., K. K. Kang & J. Y. Kim. (2017). *A Study on Longitudinal Survey and Poloi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44] J. J. Hong. (2004). *A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ders' Family*, Master thesis,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45] J. K. Kim, H. Y. Baek, H. J. Lim & K. O. Lee. (2010).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46] M. H. Han.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47] Y. S. Seo.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2(4),* 1147-1168.
UCI : G704-000523.2010.22.4.007

[48] R. B. Kline.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49] B. R. Ryu. & K. A. Kim. (2014). An analysis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7),* 87-111.
DOI : 10.14328/MES.2014.09.30.87

[50] H. S. Kim. (2018). A Study on Recogni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8(3),* 1-20.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15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졸업(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7월 ~ 현재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다문화
· E-Mail : wookana@hanmail.net